

대한속기협회소식



이사장 신년사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실과 근면, 지혜와 총명을 상징하는 흰 쥐의 해,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알찬 결실로 맺어지는 변영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협회는 강원도 정선에서 한글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음성인식 기술의 현주소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한글속기무료강습을 통해 취업 기회 확대 및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칼리아리에서 열린 국제속기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제 대회에서 꾸준히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여 한국 속기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속기인들과 정보 교류 및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연수를 통해 자기 계발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회는 매년 변화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휘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작년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 ICT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혁신이 그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진전 속도와 파급 효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속기산업을 연착륙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TF를 구성해서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음성인식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급격한 변혁을 예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속기가 기록의 중심에 서게 하겠습니다.

기록은 역사의 토대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기록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 세월의 때가 묻은 기록물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오늘날 그 가치를 떨치고 있는 것은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공헌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역사 기록을 묵숨처럼 여겼던 사관의 기록정신이 대대로 내려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속기협회가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뛰며 우리의 노력이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김덕진

이사회 소식



■ 제233차 이사회는 2019년 4월 2일에 개최되어 ● 총무이사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는 후 논의가 이루어졌고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부서별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자격심사위원장으로부터 제27회 속기경기대회 결과 보고가 있는 후 각 담당 이사별로 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터스테노 한국 대표 참가의 연속성과 출제 시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예전 협회 자료의 텍스트화 및 분류작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속기역사관과 협회의 자료연계 방안 모색과 속기학술 세미나 시 여러 직역의 참가 독려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기타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 제234차 이사회는 2020년 1월 7일에 개최되어 ● 총무이사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제53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총회 개최 일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 다양한 분야의 속기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이사들의 당부말씀이 있었고, 제53회 정기총회를 2020년 1월 29일(수) 18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9년도 결산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2019년도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김점동 감사로부터 결산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결산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는 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글속기무료강습 일정을 앞당겨 효율성을 높이자는 정상덕 이사의 말씀이 있었고, 협회의 예산 증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논의(한중 속기경기대회 등)가 필요하다는 김점동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4항 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임원 개선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는 후 논의가 이루어졌고 신입 총무이사(정숙) 개선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5항 기타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9년도 사업결과 보고

제27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가 하이원리조트(강원도 소재)에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국회·지방의회·한국복지대·한국스테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속기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조정운 한국속기학회장의 ‘선진 외국의 속기역사’, 권기봉 역사여행가의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법’, 이경숙 대한속기협회 연구위원장의 ‘음성인식 기술의 활용성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탈리아 칼리아리에서 개최된 2019년 제52차 INTERSTENO CONGRESS에는 29개국, 5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본 협회에서는 12명의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성인식 기술 등 각국의 속기동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한글속기 현황과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에 참가한 협회팀은 정지은 회원이 2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소식지 제28호, 속기계 제55호(2019년도판)가 제작·발송되었으며,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 안내와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한글속기무료강습은 (주)속기에듀에서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참가인원은 50명이었습니다.

제27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가 3월 28일 국회 의정관 전산교육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입상자에게는 2019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국회 예선 통과자 7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이 결선에 참가하여 실력을 겨룬 결과 김명진·정지은·최은혜 씨가 입상하였습니다.

01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연수 실시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회의록 작성 실무, 의회회의록과 한글맞춤법, 지방의회 회의운영론 등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과정

기간 2019. 4. 8.(월) ~ 4. 10.(수) | 주최 대한민국 국회



02

한국속기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개최

8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속기산업을 통한 청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속기학회 조정운 회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구될 것이고 속기산업도 이에 대한 대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속기사 양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03

중국 아웨이컵 속기경기대회 출전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를 통해 교류를 지속해 온 중국 대표 속기회사 아웨이 주최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웨이컵 속기경기대회에 이주성 회장 등 한국 속기대표단이 초청받아 출전하였습니다. 인터스테노와 같은 국제 대회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국 속기를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1일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또한
기록팀을 신설하여
현재 의사팀, 기록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5문 5답

질문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2.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3.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4. 국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5.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김명진

- 1 '호기심러'입니다. 모르는 게 생기면 질문을 해서 답을 알아내고자 하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 2 스무 살 때 어머니께서 수필속기를 배우셨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노트 정리나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었기에 손으로 하는 작업인 속기에 매력을 느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3 소방직 공무원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 4 필기에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도전할 때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기에 운 좋게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5 국회에 들어오니 제가 얼마나 부족한 속기사인지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처럼 국회속기사가로서 제 몫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후배가 되도록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 1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보조해 주면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2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중 어머니께서 예전에 수필속기를 배우셨던 경험으로 속기를 추천해 주셨고, 적성에 맞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3 경찰공무원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 4 작년에 면접에서 떨어지고 다시 준비하면서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 5 선배님들께 많이 배워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고,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김아라

- 1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고통을 공감하고 소리와 접촉을 통해 상대를 다독인다고 합니다.
- 2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다른 직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속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3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 동남아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4 시험 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 5 신뢰받는 속기사가 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가며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서지영

- 1 '지점토'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만들고자 하는 모양에 따라 변화 가능한 지점토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 2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속기를 알게 되어 배우게 되었습니다.
- 3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IT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 4 국회사무처 속기직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고 다른 직렬에 비해 소수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5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새내기이지만 배우에 최선을 다해서 선배님과 동료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안 소 희

- 1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름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때문입니다.
- 2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진로를 결정하던 시기에 우연히 속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 3 호텔조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4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혼자 견뎌야 한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 5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선배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배우는 자세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가 현

- 1 '스편지'입니다. 어디서든 무엇이든 주어진 것을 잘 흡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2 저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속기사의 속기 영상을 보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3 광고홍보학을 전공해서 광고나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4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아닌 공부하는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 했었고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었는지 나 자신을 잃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것을 느끼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야 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 5 도서관 책상에 앉아서 항상 꿈꿔왔던 목표를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그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임 수 민

- 1 저는 '보온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과달리따뜻한 물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보온병처럼 차가운 첫인상과 달리 마음이 여린 편이고,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저의 신조와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2 이전에 속기를 배울까 고민하셨던 어머니께서 저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평소 자료를 다루는 일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선호하는 저의 성향을 보시고 제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 3 의류학을 전공하였는데 그 공부를 계속하면서 학업을 이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 논문을 읽고 정리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들이 재미 있었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하는 방향을 선택했을 것 같고,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속기 업무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4 공부를 핑계 삼아 행복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합격하면 해야지, 시험 끝나면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미루어 온 것이 가장 아쉽고 힘들었습니다.
- 5 수많은 경험으로 노하우를 터득하신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면서 책임감을 가진 국회속기사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저 역시도 후배 속기사님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회원동정

(2019. 12. 31. 현재)

